

# ‘산뜻한 출발’ 광주FC, 강원 잡고 연승 간다



광주FC가 10일 홈에서 강원FC를 상대로 K리그1 2라운드 경기를 갖고 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가브리엘(오른쪽)이 지난 2일 FC서울과의 홈 개막전에서 골을 넣은 모습. <광주FC 제공>

10일 K리그1 2라운드 홈경기...지난 시즌 1승 2무 ‘광주 우위’  
빌드업 vs 빌드업, 자존심 건 승부 예고...전남은 9일 홈 개막전



광주FC가 홈팬들 앞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가 10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강원FC를 상대로 K리그1 2024 2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기본 좋은 출발을 했던 광주의 연승 도전 무대이다. 광주는 지난 2일 홈에서 열린 FC서울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전반 20분 이희균이 시원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장식했고, 1-0의 불안한 리드가 이어지던 후반 추가시간에는 K리그 데뷔전에 나선 새 외국인 선수 가브리엘이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쐐기포를 장식했다.

이날 탱크 같은 움직임으로 상대 공격을 막고, 빠른 스피드로 광주 공격 기회를 만들어낸 가브리엘은 경기 수훈 선수는 물론 1라운드 MVP 영예까지 차지했다.

서울 김기동 감독이 꺼내두었던 리카드 카드를 후반 31분 꺼내 들었지만 광주는 슈팅, 유효슈팅, 코너킥 등 모든 부분에서 앞서며 개막전 승리를 낚아챘다.

광주는 ‘우승후보’ 서울을 상대로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를 바탕으로 선제골을 만들었고, 수준 높은 오퍼블로 경기를 주도했다. 이날 경기에는 7805명이 입장하면서 광주축구전용구장 역대 최다 관중 기록도 만들어졌다.

팬들은 기대감으로 광주의 두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다. 벤치에 시선이 쏠린다.

앞선 경기에서 2-0 승리를 지휘하고도 이정호 감독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 후반 막판 서울의 공세가 펼쳐지면서 위기의 상황도 있었다. 경기 내내 일관된 경기력을 강조한 이정호 감독, 그래서 이번 강원전에 더 관심이 간다.

개막전 승리를 합작한 이희균과 가브리엘이 연승의 핵심이다.

이희균은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초반 분위기를 이끌었고, 빠른 발을 활용한 전진 드리블 실력과 골 결정력까지 더해 첫 골을 만들었다. 가브리엘은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워 경기를 압도했다.

중원도 든든하다. 프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은 정호연은 유연한 탈압박과 정교한 패싱 능력으로 ‘이정호 황태자’다운 활약을 했다.

아주대 은사인 이정호 감독과 재회한 독일 분데스리가2 출신 베테랑 최경록도 날카로운 왼발킥과 전진 드리블로 위협적 상황을 연출하면서 테크니션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2라운드에서 만나는 강원도 ‘빌드업 축구’로 만만치 않은 승부를 예고한다.

강원은 앞선 개막전에서 제주유나이티드와 1-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윤정환 감독의 ‘빌드업 축구’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투톱으로 나선 외국인 공격수 가브리엘과 이적생 이상현도 경계 대상이다. 부산에서 이적한 이상현은 32초 만에 골을 터트리면서 인상적인 첫 경기를 펼쳤다. ‘제2의 양현준’으로 불리는 신에 공격수 양민혁에도 눈길이 간다.

지난 시즌에는 광주가 1승 2무로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가 개막전 분위기를 이어뜨기위한 관중석에 다시 한번 승리를 선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리그2의 전남드래곤즈도 홈에서 시즌 첫승을 노린다.

전남은 9일 오후 4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김포FC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는다.

지난 2일 충북청주와의 원정경기에서 나섰던 전남은 후반 4분 유민호에게 내준 골을 만회하지 못하면서 0-1패로 2024시즌을 열었다. 전남은 안방에서 시즌 첫승을 신고하겠다는 각오다.

주장 고태원은 “승격이라는 큰 목표를 세웠다. 1라운드 경기는 아쉬웠지만 홈 개막전을 찾을 홈 팬들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브라질 출신 수비수 브루노 영입

광주FC가 브라질 출신 센터백 브루노(사진)를 영입했다.

광주가 7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한 수비수 브루노(27·Bruno de Oliveira Souza)로 수비를 강화했다.

원발잡이 센터백인 브루노는 187cm·80kg의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헤더가 뛰어나며 빠른 스피드로 역습시 커버 플레이에도 강점을 보인다.

불매금과 탈압박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브루노는 공격 전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받는다.

브라질 클럽 포르투게자에서 데뷔한 브루노는 센트라우SC, IF상호신세 등의 팀을 거쳐 2022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프리미어리그의 NK 시로키



브리에그로 무대를 옮겼다.

23경기에 출전하면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한 브루노는 지난해 같은 리그 FK 벨레즈 모스타르로 이적했다.

광주에서 새 도전에 나서는 브루노는 “손흥민과 김민재의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

과 K리그에 대해서 알게 됐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광주가 1부리그에서 단단히, 꾸준히 버틸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4위 싸움 분수령’ 손흥민 2경기 연속골 정조준



4위와 5점차 5위 토트넘, 10일 EPL 28R 애스턴 빌라와 격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득점포 가동을 재개한 ‘캡틴’ 손흥민(토트넘·사진)이 2경기 연속골을 정조준한다.

토트넘은 10일 오후 10시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리는 2023-2024 EPL 28라운드에서 애스턴 빌라와 격돌한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의 마지막 선인 4위를 노리는 토트넘에는 분수령이 될 만한 경기다.

현재 EPL 순위표에서 토트넘은 승점 50으로 5위, 애스턴 빌라는 승점 55로 4위를 달리고 있다.

승점 5 차이로 빌라를 뒤쫓는 토트넘은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던 26라운드가 상대 첼시의 리그 컵 일정으로 연기되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번 맞대결을 잡는다면 토트넘으로선 빌라와의 격차를 승점 2로 좁히고 막판 역전 4위 도약의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빌라와 리그 맞대결에서 2연패를 당했고, 이번 시즌에도 지난해 11월 열린 13라운드에서 1-2로 지며 최근 상대 전적에서 철저히

밀리고 있다. 빌라가 최근 리그에서 3연승을 올려 상승세 중이라는 점도 토트넘으로선 부담스럽지만, 빌라가 주중 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경기를 소화한 뒤 토트넘을 상대해야 하는 건 변수로 꼽힌다.

주장이자 공격의 핵심 손흥민이 직전 라운드에서 모처럼 골 맛을 본 것도 중요한 대결을 앞둔 토트넘엔 긍정적 요소다.

손흥민은 3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후반 43분 자신의 시즌 13호 골을 터뜨려 3-1 승리를 이끌었다.

한국시간 1월 1일 새벽 열린 본머스와의 20라운드 이후 토트넘 경기에선 약 두 달 만에 나온 손흥민의 득점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불발과 이후 불거진 대표팀 내분 사태로 겪은 마음 고생도 털어낼 수 있는 한 방이었다.

히사롤리송이 무릎 부상으로 빠지면서 크리스털 팰리스전 때 최전방에 출격해 해결사 본능을 뽐낸 손흥민은 이후에도 당분간 최전방에 배치될 공산이 커 특유의 ‘불어치기’도 기대해볼 법하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선 이번 주말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와 미드필더 이재성의 ‘코리아너비’가 예고됐다. 김민재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이 9일 오후 11시 30분 이재성이 뛰는 마인츠를 알리안츠 아레나로 불러들여 분데스리가가 25라운드에 나선다. 선두 레버쿠젠(승점 64)과 승점 차가 10으로 벌어진 2위 뮌헨(승점 54)은 최대한 승점을 쌓아 실낱같은 우승 희망을 붙잡아야 하는 처지고, 17위 마인츠(승점 16)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갈 길이 바쁘다. 주중 라치오(이탈리아)와의 UCL 16강 2차전에서 에릭 디아에게 밀려 벤치에 앉은 김민재가 선발로 복귀할지도 관심 포인트다. 프랑스 리그1 선두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10일 오후 9시 랭스와 25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이강인은 6일 레알 소시에다드(스페인)와의 UCL 16강 2차전에서 킬리안 음바페의 득점을 도와 UCL 경기에서 첫 도움을 작성한 뒤 기분 좋게 리그 경기를 준비한다. 아시안컵 기간 손흥민과의 물리적 충돌이 알려져 큰 비판을 받았던 이강인이 황선홍 임시 감독 체제의 3월 A매치에 합류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명단 발표(11일) 전날 경기라 활약이 더욱 주목된다. /연합뉴스

## 여자 U-17 한국대표팀 아시안컵 북한과 A조

인니서 5월 6~19일 개최

김은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여자 아시안컵에서 북한과 같은 조에서 경쟁한다.

7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AFC 본부에서 열린 2024 AFC U-17 여자 아시안컵 본선 조 추첨 결과 한국은 개최국인 도네시아를 비롯해 북한, 필리핀과 함께 A조에 편성됐다.

지난 대회 우승팀 일본과 중국, 호주, 태국은 B조에 속했다.

총 8개 팀이 겨루는 2024 AFC U-17 여자 아시안컵은 5월 6~19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한국은 지난해 4월과 9월 예선에서 전승을 거두고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 상위 세 팀은 오는 10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뚫는다.

한국은 2010년 U-17 여자 월드컵에서 이금민(브라이턴), 여민지, 장슬기(이상 경주한수원) 등의 활약으로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